

https://youtu.be/cFANezsSHFo?si=I9_G3zT_O4uNpTk

失われた夏の痕跡



USINA WARETA
NATSU NO KONSEKI



하타베 하루키

25 (외관나이 20세)

175cm

남성

나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 임시적인 엔딩 크레딧.

"이건, 역시 잘 모르겠네."





download



사교적인, 장난기 있는, 이상주의자

천성적으로 밝고 여유로운 성격으로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친구가 되었다.

특히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스스럼없이 대한다. 초평화 버스타즈는 물론, 교내 선생님이나, 주위 상점가의 어른들과도 꽤 친분이 있었다.

조금 미어페이스인 기질이 있지만 기본적인 눈치가 빨리 주위 분위기에 간단히 녹아들거나, 가벼운 농담을 던져 공기를 빠르게 전환한다.

남자 중학생들이 으레 그럴듯, 기본적인 허세가 있으며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한다. 단점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부딪히고 보는 것. 하지만 이런 점은 주변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주로 타인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편이며 이런 점이 과해지면 가끔 자신에게 해를 입힐 정도가 된다. 가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지만 본인은 그게 신경 쓰지 않는다.

중학교 2학년 시절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다.

사고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먼저 행동으로 옮기기보단 한 발자국 물러 서서 지켜보는 법을 배웠다.



#가족관계

父 - 하타베 사토루/ 도쿄 료쿠인 섬에 거주하고 있는 샐러리맨.

母 - 하타베 미츠키/ 가정주부. ~~아자 집안 서열1위, 장남인 하루키에게 특하나 엄하게 대한다.~~

兄弟 - 하타베 세이타/ 5살 아래의 남동생, ~~초평화 버스타즈의 일원.~~ 현재 대학생이 되었다.

사고 이후, 하타베 가(家)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장시간의 슬픔은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 변한다고 했던가. 덕분에 10년 후의 현재, 빈자리가 생긴 3인 가정은 더욱 애뜻해졌다.

#연기

초등학교 6학년, 미스터리 영화 [물의 관]의 소년 주인공을 맡았다. 하지만 그것은 '하타베 하루키'라는 배우의 마지막 유작이 되었다. 10년 후인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 아역 배우 근황 아는 사람?', '배우 그만 됐다고 들음'. '이제 일반인이라던데' 같은 추측성 스레드만이 이따금 갱신 될 뿐이다.

#취미

TV 시청부터 야구, 게임, 만화 등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료쿠인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여전히 히어로 시리즈를 좋아한다.

#ETC

- 출생 4월 20일 , 사망 2014년 X월 XX일(향년 15세), O형, 황소자리.

- 1인칭은 오레(俺). 초평화 버스터즈 친구들에게는 이름과 별명을 혼용하여 부른다.

- 사고 이전 당시, 불량한 형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 해당 소문의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열차 사고로 덮여졌다.

- 시간의 감각이 모호하여 자신이 언제부터 눈을 떴는지 알지 못한다. 초반에는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것에 죄책감과 미안함을 안고 있었지만... 지금은 밝은 모습으로 친구들을 응원해 주고자 한다.

- 흔히들 '천의 얼굴'이라고 하던가, 외관에서 유독 돋보이는 것은 다양한 배역에 어울릴 법한 마스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체격이다. 물론,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랐을지는 영원히 모르는 것이 되었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렇다.

- (캐릭터 기준) 왼쪽 손목시계에 6개의 우정팔찌를 엮었다. 추문에 따르면 전교생의 우정팔찌를 맞추려고 했다가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 사춘기 진행형? 막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변성기를 마쳤다. 부드럽지만 남자다운 목소리.

좋아하는 것: 파X레인저(XX전대), ~~먹을 거, 놀 거~~ (감각이 온전치 않아 흥미가 떨어졌다.)

싫어하는 것: 누군가 곤란해하는 상황, ~~엄마(무서움)~~